

부활절 설교

고 정 수 (목사, 충남 부여 상기교회)

본문 : 요 11:25-27

제목 : 부활하신 예수를 생각하자.

저는 지난 2월 첫째 주간에 3박 4일 일정으로 강원도 청평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금식도하고 옛날 속사도들과 교부들에 관한 책자도 몇 권 읽었습니다. 일정 마지막 날 밤, 잠을 청하는데 한방에 머물고 있던 목회자와 평신도들 간에 영성이 무엇이나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의 주장을 열심히 펼치고 있었습니다. 참자기는 다 틀렸다고 생각하고 일어나서 그들의 대화에 끼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성에 대해 내 나름대로 생각한 바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로 영성이란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주제를 바꾸어 가며 오랫동안 대화를 했는데 대화가 끝날 무렵 감리교 목사 한 분이 저에게 말하기를 “고 목사가 영성을 간단하게 정의했지만 그것이 마음에 남는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마침 교부들의 사상을 읽고 있던 차에 나온 말이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년 부활주일 설교 제목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생각하자”고 정한 것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의 집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생각하자는 것이 정당한 주장이 되기 위해

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할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그분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불교에서도 법(法)과 인(人)을 구별합니다. 법은 인간이 알든 모르든 엄연히 존재하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인은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실천해야하는 사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부활의 그리스도에게 관심 할 수 있기 위해서도 각자의 주관적인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는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영적 생활에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 할 수 있어야합니다.

첫 번째 조건인 예수 부활의 사실성 문제는 성경이 선포하고 증언하는 것을 손대지 않고 그냥 제시하는 것 이상의 권세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십자가 사건과 함께 성서의 가장 강력한 선포입니다. 사람의 믿음이나 수공 여부가 부활 사건을 만들어 내거나 없애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부활사건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고백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사건을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선포가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사실로 족한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에게 관심을 집중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한 두 가지만 말한다면 우선 무엇인가를 버리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영경귀와 가시덤불이 우거진 밭에서는 곡식이 제대로 자라 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려면 걱정거리가 되었던 자랑거리가 되었던 정욕거리가 되었던 그 가지들을 전지(剪枝)해 가는 애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하는 사람은 눈만 뜨면 주식 전광판을 들여다 봅니다. 자연히 묵상도 기도도 뒷전으로 물러가 버리고 그리스도를

생각할 힘이 소진돼 버리고 맙니다.

사실 저의 친구 중에 애널리스트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재산까지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푸념처럼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회를 그만 하든지 애널을 그만 하든지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입니다.

돈버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관심까지 빼앗기며 돈버는 일은 결코 권장 할 만한 것이 못되는 것입니다.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으며 거기에 감사 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도 잘 믿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는 못할 일입니다.

어거스틴은 탕아에서 성자로 변한 사람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어거스틴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느냐에 대해 흔히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모니카가 자식을 걱정하며 밀란의 암부로시우스와 상담할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암부로시우스가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한 말도 유명합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모니카에 의해 쫓겨나다시피 한 이름 모를 어거스틴의 15년 동거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사람들에게 의해 그녀와 억지로 갈라서게 될 때 그의 마음은 찢겨어 상처를 입고 피를 흘렸으며, 그녀는 다시는 재혼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아프리카로 떠나갔다고 『고백론』에 적고 있습니다. 그 후 그녀와 다시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그녀를 잊기 위해 그리스도를 찾았고,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그녀를 잊으려는 과정에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어거스틴 사상강좌』 윤원호 옮김 참조).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인가를 버리는 과정에서 그리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생각을 집중 할 수 있기 위해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심을 늘 상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 3:20)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에 계신 것을 객관적인 사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와 사귀기 위해서는 각자의 주관적인 행위 즉, 문을 여는 것이 필요한데 저는 문을 여는 행위는 그저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그 사실을 수긍하고 상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칼 용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까?”

질문을 받은 용은 파이프를 빨며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신이 존재하는 것을 믿느냐고? 흔히 사람들은 잘 못 믿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하지. 그래서 나는 믿는다고 말하지 않겠네. 나는 그 분이 늘 함께 계신 것을 알고 있네”

칼 바르트도 말하기를 “인간은 앞과 뒤로 그리스도에 의해 감싸여 있다”고 했습니다.

연약한 제자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신 주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생각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소리지르고 야단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힘만 들고 열심만큼 효과를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생각을 집중할 때 과연 영적 생활에 유익하다는 것을 체험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간단한 저의 체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도 새벽에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려면 때때로 졸리고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 필요한 요령을 한가지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을 얼른 생각해 내는 것입니다.

“너는 기도 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

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갓으시리라”

이 말씀을 떠올리며, “그렇지 주님은 보이지 않게 여기에 은밀히 계시지”하고 생각하면 다시 정신이 들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곤 합니다.

우리는 괴로울 때도 “아! 그렇지 주님이 여기 함께 계시지” 하고 얼른 생각해 내야합니다. 억울할 때나 지칠 때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시지” 하고 생각해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필요한 용기와 소망을 얻게되는 것을 체험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의 부족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며 질그릇 같이 연약할 따름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생이 연약한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또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나 존경이 결여되어 있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다 알 수 있는 지식이 있을 것이며, 누가 그리스도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자신이 항상 그리스도와 대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자주 떠올리는 사람이 진짜배기 예수쟁이이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공자에게 저승(afterlife)에 대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요?”

“이 사람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도 잘 모르겠는데 어찌 저 세상 일까지 알 수 있겠는가?” 라고 공자는 대답했다고 합니다. 정직한 말이지만 여기에 무슨 능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비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요 11:25-26).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

얼마나 확신과 능력을 제공하는 말씀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순간순간 생각해내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영적인 많은 유익을 얻고 인생의 성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관심을 집중하는 일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❷